



지난해 11월 미사리경정장에서 16기들이 신인경주에 참가해 수면을 가르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슬로 스타터’ 방극산, 특선급은 가장 먼저?

방극산, 윤현구 꺾고 특별승급 기회 초반 활약한 이태운은 낙차 후 부진 정현수, 10월에만 5승 상승기류 타 김영수는 선발급 9연승 후 우수급행

7월부터 본격적인 실전에 참가한 26기 신인 중 ‘빅4’로 불리는 네 명의 기대주들이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6기의 ‘빅4’는 정현수(계양), 이태운(북광주), 방극산, 김영수(이상 세종)를 말한다. 이들은 현재 우수급에서 승수를 쌓아가며 강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4명 중 출발이 좋았던 선수는 차석졸업생 이태운(24)이다. 7월 2일 창원에서 열린 데뷔전에서 선행 2착의 좋은 성적을 내더니 일요경주에서는 당당히 우승까지 기록해 가장 먼저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태운은 2주 후 광명 출전에서도 결승에서 적극적인 경기운영으로 우승후보였던 김민호를 밀어내며 우승했다. 이후에

도 8월 8일 결승 선행 3착, 8월 20일 결승 추입 2착 등 꾸준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이태운은 10월 4일 광명 결승에서 낙차를 당해 상승세가 꺾였다. 6주 만에 복귀전을 치른 지난 주 금, 토 경주에서 선행을 부를 펼쳐 각각 3, 7착을 기록했고 일요일도 마크 3착으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육상선수 출신 수석졸업생 정현수(31)는 프로 적응기를 마치고 10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데뷔전에서 특선급 출신의 박지영과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선행 2착을 기록한 그는 8월 13일 첫 승을 올렸다. 이후 지나친 선행 일변도 전략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10월 2일 부산에서 다시 우승했다. 이를 후 월요경주에서도 선행 우승에 성공한 이후 정현수의 기세는 탄력이 붙었다. 다시 이를 뒤 광명에서도, 일요 경주 선행 2연승 후 월요 결승에서도 선행 2착을 했고, 10월 31일 부산 결승에서는 윤현구와 접전 끝에 추입 2착을 했다.

10월 이전까지는 1승에 그쳤으나 10월

한 달 동안 무려 5승을 올렸다. 11월 들어서도 지난 주 광명 금요 경주에서 우승후보 강진원을 상대로 선행으로 1승을 추가했다.

● 방극산, 특선급 도전 가장 빨라

3위 졸업생 방극산(24세)은 6월 11일 시범경주에서 낙차, 실격에 이어 실전 데뷔 후 10경기 연속 입상 실패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거두었다. 하지만 8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마침내 9월 17일 고대하던 첫 승을 올렸다. 이어 이를 후 일요경주에서도 추입 1승을 추가했다.

탄력이 붙은 방극산은 10월 1일에는 김태범을 3~4코너로 꺾히기로 이겼고, 24일 결승에서는 특선급 출신의 윤현구를 상대로 첫 승을 올렸다. 지난주에도 금요일 선행 1착, 토요일 추입 1착, 일요결승 첫 승 2착을 추가했다. 방극산은 비록 ‘빅4’ 중 첫 승은 가장 늦었지만 특선급 특별승급은 다음 회차 출전에서 가장 먼저 도전한다.

‘1등 같은 꼴찌’라는 별명이 붙었던 김영수(27)도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왔다. 그는 훈련원 시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오른쪽 발등골절 부상으로 관리경주를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해 꼴찌로 졸업했다. 그래서 선발급에 배정을 받았지만 독주 우승을 밥 먹듯이 하며 9연승을 기록하더니 우수급으로 올라왔다.

우수급에서도 데뷔전 금, 토 경주에서 선행 2착을 한 데 이어 일요경주에서 추입승을 올렸다. 지난주에도 2승을 추가한 김영수는 우수급 승급 후 9회 출전에 1착 5회, 2착 2회, 3착 1회(승률 56%, 연대율 77.8%, 삼연대율 88.9%)의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예상지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26기 ‘빅4’는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있다”며 “아마시절 스피리트, 경륜이 주종목이었던 방극산, 김영수는 지구력뿐만 아니라 순발력도 수준급이어서 특선급 활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베테랑이 휘어잡은 경정 15·16기 신바람 언제쯤

15기 정세혁·16기 전동욱 복병급 활약 기대

경정은 경험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 종목에 비해 세대교체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이번 시즌만 봐도 데뷔 19년차인 2기 김종민과 김민천이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현재 경정 최강자로 꼽히는 심상철도 7기로 고참급에 속한다.

이렇게 베테랑의 경기력이 강한 가운데서도 그나마 최근 11기 김승선, 12기 류석현, 조성인, 한성근, 김인해, 13기 김민준, 14기 박원규 등 비교적 최근에 졸업한 기수에서 스타급 선수들이 등장해 세대교체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막내급으로 레이스 전반에 신인의 패기를 보여줄 15기, 16기들은 아직 기대만큼 선배들을 위협하지 못하고 있다. 15기 16명, 16기 12명으로 타 기수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인원을 선발했고 훈련 기간도 길어 데뷔 전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신인 스타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15기 훈련원 성적 1위와 2018년 신인레이스에서 호성적을 거두었던 김경길도 이번 시즌 우승 1회, 준우승 3회에 머물고 있다.

15기에서 그나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정세혁이다. 올 시즌 우승 7회, 준우승 7회를 기록했다. 신인급 선수답지 않은 운영능력과 선풍력으로 선배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세혁을 제외한 나머지 15기는 여전히 복병급 수준에 머물고 있다. 16기는 더욱 존재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최근 전동욱이 상승세를 타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역시 복병급 수준이다. 훈련원 성적 1위인 나종호나 강자 심상철이 선풍력을 인정한 흥진수도 서서히 성적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15기, 16기는 현재 성적이 조금 억울한 점도 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지난 시즌을 통째로 날리면서 훈련원에서 배운 기술들을 실전에서 적용하며 기량을 키울 시기를 놓쳤다. 여기에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경정 전문가들은 “15, 16기들은 성적에 따른 주선 보류 면제라는 특혜가 있다. 성적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다양한 작전 구사를 통해 자신에 맞는 경기 스타일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석한다. 김재범 기자

경륜·경정 대전지점 30일부로 영업 종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30일 대전지점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전지점의 영업을 종료한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지점은 2001년 10월 19일에 개장해 올해까지 20여 년간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 입주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 종료로 다가왔고,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화와 온라인 발매 도입에 맞춰 지점폐쇄를 결정하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대전지점에 앞서 5월과 6월 서울 영등포지점과 경기도 고양 일산지점을 조기에 폐쇄하는 등 사업 건전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점폐쇄로 인해 확보하는 유휴 공간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전지점의 영업종료가 이루어지면 경륜·경정은 2개의 본장과 14개 장외지점(수도권 13개, 지방 1개)을 운영하게 된다.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대전지점을 이용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아쉬움이 많지만 온라인(스피드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나 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

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스피드온을 통해 경륜·경정 경주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모바일 앱 ‘스피드 온’이나 온라인 사이트(www.speedon.or.kr)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절차는 스피드온 앱을 다운받은 후 전건이용 약서에 동의하고 전건구매자키에 자신의 성명, 게임몰입도, 기간별 자기한도 설정 후 게임종목 예방교육 시청을 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김재범 기자

골프·생활체육

‘2인자’ 고진영, LPGA 마지막 대회서 골프퀸 자리 되찾을까

18일부터 CME 그룹 챔피언십 개최 코다에 올해의 선수 부문 10점 뒤져

벨리 코다(미국)와 세계 여자골프 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진영(26)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16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고진영은 1위 코다(9.98점)에 0.95점 뒤진 9.03점으로 2위 자리를 지켰다.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4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던 고진영은 지난주 발표에서 단 0.004점 차로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전날 끝난 펠리컨 챔피언십 결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다는 4명이 펼친 연장 끝에 시즌 4승을 수확했지만 고진영은 공동 6위에 머물렀다.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2위 코다가 고진영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직전 대회까지 161점에 그쳤던 코다는 30점을 추가하며 191점으로 1위가 됐고, 176점으로



선두였던 고진영은 5점을 보태는데 그쳐 181점으로 코다에 10점 차로 뒤지는 처지가 됐다.

올해의 선수와 달리 공식 시상식은 아니지만 상금과 다승 부문에도 변화가 있었다. 상금

1위 코다(223만7157달러·26억4000만 원)와 2위 고진영(200만2161달러·23억6000만 원)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코다가 6월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5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면서 다승 부문에서도 코다와 고진영은 나란히 4승을 기록하며 공동 1위가 됐다.

이제 2021시즌 LPGA 투어는 18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런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CME 그룹 챔피언십(총상금 500만 달러·59억 원) 단 한 대회만 남아있다. 이 대회의 우승상금은 150만 달러(17억7000만 원)다. 우승할 경우 올해의 선수 포인트 30점, 준우승자에게는 12점이 주어진다.

세계랭킹 1위 복귀와 2년 만의 올해의 선수 탈환, 3년 연속 상금왕 등을 위해서는 마지막 승부에서 웃어야 한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서는 고진영은 “타이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회지만, 의식하지 않고 여유 있게 경기하겠다”고 말을 아끼며 최종전에 대한 신중한 마음가짐을 전했다. 김도현 기자 dohyun@donga.com

대한체육회, 오늘까지 ‘국제경기대회 포럼’ 개최

국제대회 대면·비대면 개최 정보 공유 유튜브 대한체육회TV 통해서 생중계

스포츠733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종목단체·시도체육회 등을 비롯한 체육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제3회 국제경기대회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16일과 1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5층 백두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대한체육회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 포럼은 우수한 사례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와 관련한 합리적인 원칙·기준 마련과 지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경기대회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주관 기관인 대한체육회 외에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체육단체 및 학계와 민간기관의

관계자,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틀간 총 10개의 세션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동향과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특히 단기간 일상 회복을 알리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국제대회의 대면·비대면 개최를 위한 필수 정보와 노하우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이밖에 올해 12월부터 도입되는 종목단체·지자체 컨설팅 프로그램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체육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과 방안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체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3회 국제경기대회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진행되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게 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지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